



삼보사찰 천리순례 대중 고불문

🔴 법보



교계 입력 2021.10.02 15:45 수정 2021.10.05 15:38 호수 1603 댓글 0

시방삼세 모든 생명에 계시는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옵니다.

오늘 삼보사찰 천리순례 사부대중은 유례없는 감염병과 분별갈등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겠다는 다짐으로 불법승 삼보에 지극한 마음으로 고하나이다.

우리가 직면한 고통을 중생 모두의 과보로 여기고 나부터, 우리 먼저 미혹함을 사르겠다는 청정발원을 깊게 새깁니다. 함께한 원력으로 쓰러진 자리에서 떨쳐 일어설 것이며 이제 천리순례 만행길을 기꺼운 마음으로 떠나고자 합니다.

지혜의 눈을 열어주고 막막한 가슴을 청명하게 밝혀주었던 불법승 삼보의 불국성지가 이 땅에 있음을 확인하고 한국불교의 정법존엄을 지켜온 삼보중철을 두루 알리어 상월결사의 공덕을 전법의 빛으로 널리 승화하고자 합니다.

민음의 힘을 내려주셨으니,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대자대비의 꽃비가 내리는 길임을 저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 길은 상월선원 정진이 일깨워준 불교중흥의 초석이 되는 길이며 국난극복과 민생회복을 염원하는 실천의 길임을 굳게 믿겠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대원력의 바탕 위에 서로를 참된 인연으로 여기며 실천수행의 진중한 가르침을 지극히 따르겠습니다. 강과 산을 따라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에 이르기까지 생명과 생명으로 이어진 존엄한 삶의 길임을 알아가며 자기수행과 대중화합이 어우러진 불교운동을 실천하겠습니다.

그 옛날 부처님께서 걸으신 전법과 포교의 길이 우리 땅에도 똑같이 살아있음을 환희심으로 체감하고 한국불교 전통계승 순례, 불교중흥 원력동참 순례, 사회갈등 극복화합 순례임을 여실히 알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옵니다. 사부대중 모두가 한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고하오니 자비로운 천 개의 팔과 지혜로운 천 개의 눈으로 우리 가는 길을 밝히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원하고 원하옵건대 천리순례 시시처처에 불국정도가 장엄되어 있음을 보게 하시고 청정수행 전통이 면면 약존 이어져 내려옴을 듣게 하시며 묵언행선을 통해 세계일화의 절대평화를 깨치도록 해 주시옵소서.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최신뉴스

더보기 >



선시는 함축적으로 일려주는 인생의 사구계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연잎밥 도시락 나눔 행

근현대 불교 이끈 구하·한암 스님 조영...“역사... 생명나눔, 제13회 생명나눔 산사음악회 개최 “매년 늘어가는 외로운 죽음”...무연고 사망자... 합천 해인사, 제2회 해인사 팔만대장경 웹툰... 대전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 ㈜에치와이 초청... 가야산 해인사 원당암, 중양절 맞아 합동 천도...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제4회 어린이 담마스... 어린이불자들, 요리 솜씨로 '자연아 사랑해'

연재



- 세심참심** 차별없이 내리는 비
- 나의 발심수행** 다라니기도 김준우(48, 법성)...
- 최명숙의 일상의 발견** 17. 안동 봉정사 단상

불기2565년 10월1일
삼보사찰 천리순례 사부대중 일동

[1603호 / 2021년 10월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당신의 1만원, 2명에게 새 삶이 됩니다**
교도소·병원·군법당에 신문 보내기 010-4655-7010로 문자 '법보시'를 보내주세요

관련기사

- ▶ 정혜결사도량 송광사서 불교중흥 발원 천리순례 첫발 내딛다
- ▶ [천리순례 5일차] 우직한 소걸음으로 지리산 넘어 남원에 닿다
- ▶ [천리순례 6일차] 실상사 맑은 종성 뒤로 하고 깨달음의 길에 서다
- ▶ [천리순례 7일차] 새벽녘 오도재에서 함양 용추캠핑장까지 30km 행진
- ▶ [천리순례 14일차]사부대중, 한국불교 위기극복 위해 머리 맞댔다



이메일



기사저장



공유

저작권자 © 법보신문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0개의 댓글

작성자와 비밀번호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작성이 간편합니다.

0 / 400

댓글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⓪ BEST댓글

무진등

마하의료회장 김정순 약사



이제열의 소리를 관하다

35. 지옥의 소리-상



많이 본 뉴스

18. 탈종교 시대와 불교 (2)
- “부처님 가피 법보시로 갇아야죠”
- [천리순례 2일차] 새벽을 깨우는 맑은 목탁 소리 따라 심진강변을 걷다
- 웰컴 세대의 새로운 가치
- 광주시, ‘가톨릭 순례길’ 조성사업 공식 사과...“전면 재검토”
18. 즐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
- 정청래 의원, 문화재관람료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
- [천리순례 3일차] 새벽엔 도량석·칠정례...식사 땀 오관개·축원으로 마무리
- 미디어오늘, 불교계 언론보도 왜곡하나
18. 종교 차별한 역대 정권의 수도권 도심 개발 -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법인명 : (주)법보신문사 | 제호 :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발행인 : 김형규 | 편집인 : 이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규

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
합니다.

Copyright © 2021 법보신문.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